

4대 금융, 올해 사상최대 실적 예고에도 주가는 지지부진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연간 예상 순익 6.6% ↑ 17.6조

기준금리 인하·NIM 축소 가능성
우리 제외 6개월 주가 두자릿수 하락

신한금융그룹

KB 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복귀 우려,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금융주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예상 순이익은 총 17조6197억원으로, 전년(16조5268억원) 대비 6.6%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해 홍콩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예대금리차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형 금융지주의 주가는 최근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년 전인 지난 10월 중순과 비교해 KB금융은 14.62%, 신한지주 16.73%, 하나금융지주는 12.18% 각각 하락했고, 우리금융만 0.43% 상승했지만 주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부분의 금융지주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주는 금리와 대출 수요, 기업 활동, 내수 소비 등 경제 전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은행의 수익 원천인 순이자마진(NIM) 축소가 우려되고, 미·중 관세전쟁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 대출 부실화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잠재 부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종·차주별 대출을 고위험·중

위험·저위험으로 나눠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 7일, 수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3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이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 역시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CET1 비율은 KB금융 13.51%, 신한금융 13.03%, 하나금융 13.13%, 우리금융 12.13%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위험가중자산(RWA) 확대로 CET1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은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밸류업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주는

애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인해 정부의 밸류업 대상군으로 주목받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대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증권가도 단기 주가반등에는 회의적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경기 악화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와 위험가중자산 확대가 CET1 비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4대 금융지주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2025년까지 금융주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 누락”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정정 요구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정정 신고서에 대해서도 기재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을 이유로 17일 2차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술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며 정정 신고서 재제출을 통보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과 주주 반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자금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이 변경된 배경,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한 직후 발표돼,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오너일가 지원→일반 주주 부담’ 구도로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회수에 구애 없이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도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허정윤 기자



(왼쪽부터)우길수 아톤 대표이사와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 전무가 지난 16일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아톤, PQC시스템 도입 맞손

금융권 보안강화 등 시너지 기대

메리츠증권은 보안·인증 솔루션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과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메리츠증권과 아톤은 양자내성암호 화알고리즘 기반의 전자서명 솔루션 적용 검토, 금융권 보안 강화 및 양자컴퓨팅 위협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수립 등 여러 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사업기반

경쟁력과 금융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아톤의금융권 PQC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한다.

메리츠증권은 기존 보안인증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양자내성암호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은 “새로운 리테일 서비스에 최신기술을 적용해 진정성 있는 고객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금융보안 선도 증권사로서 고객 데이터보안 및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개미, 인버스 ETF 매입 ‘증시하락’ 베팅

‘선물인버스2X’ 857억 사들였지만
증시 제한적 조정 흐름에 12%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등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락할 경우 2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8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닥150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도 159억원어치 사들였고, 코스피200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인버스’ 역시 83억원어치 매입했다.

반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대거 팔아치웠다. 개인들은 ‘KODEX 레버리지’ 2504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2058억원, ‘TIGER 코스닥150레버리지’ 54억원어치 등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들의 이같은 ‘하락장 베팅’은 아직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약 12% 하락했으며,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와 ‘KODEX 인버스’는 각각 8%, 6%가량 내렸다. 이는 증시가 급락보다는 제한적인 조정 흐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피200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32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코스닥150지수도 1140~1170선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시장 일각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

하게 단기 이벤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버스 ETF는 구조상 복리 효과와 일간 수익률 추종 방식 탓에 장기 보유 시 수익률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르거나 반등 흐름을 보일 경우, 기대한 수익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버스 ETF는 단기 하락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도구지만, 정치적 이벤트나 감정적 판단에 의존한 투자 전략은 위험하다”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반등하거나 횡보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이 여전히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거래대금 1위

한국투자신탁, 국내 채권형 ETF 부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가 최근 1년간 국내 채권형 ETF 중 평균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해당 ETF의 최근 1년 평균 거래대금은 약 192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채권형 ETF 153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채권형 ETF 평균 거래대금(14억원)의 약 13배 규모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년 만기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추종하는 ‘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를 기준으로 한다. 전일 기준 순자산은 약 2조79억원이며, 최근 1년 새 순자산이 약 9500억원 증가했다.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541억원,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859억원에 이른다. 운용사 측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